

교회를 지킨 파수꾼 디모데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전서-

여호수아 1:5-6, 디모데전서 1:15

정윤돈 목사님

* **수1:5-6**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 **딤후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진 세계를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나의 전문성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우리 가정과 가문과 민족에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주셔서 홍콩 제자훈련을 잘 다녀왔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번 홍콩에서도 램넛트가 중직자가 되어서 훈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더라.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디모데처럼 1세대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란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중직자가 되어 헌신하는 한 명이면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나. 한 가지라도 제한적, 선택적 집중을 일심, 전심, 지속해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할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특별히 후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응답을 받기 바란다. 모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다. 사도 바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디모데이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광야교회와 복음을 시작하였고, 여호수아와 디모데는 광야교회와 초대 교회의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팅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항상 300%응답을 생각해야 한다. 전문성을 두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라.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라. 유일성은 두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온다.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그 그림이 24, 25, 영원까지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 어떤 만남을 만났을 때 팀이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응답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조금씩 전문화에 도전해라. 그걸 복음화시키고 세계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현장과 맞아야 한다. 시스템화시켜야 한다. 준비하고 있

으면 당연히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열정적으로 뛰게 되어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찾아내서 복음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날마다 그림을 그려가시기 바란다. 무능하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원니스되어 후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중보기도해주라. 그래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후대들이 중요하다. 지금 70대, 80대보다 30대, 40대가 훨씬 늘었다고 하더라. 70대, 80대가 가지고 있는 암이나 질환보다 30대, 40대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더 많은 것이다. 이전 세대보다 오히려 희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전도도 못 하고 믿음도 없다. 이 무능을 깨시기 바란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흑암을 쫓는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24, 25, 영원을 바라본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우리의 축복으로 행복해져야 한다. 왜 건강하고 정신이 맑아야 할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건강과 여유를 가지고 현장과 후대들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는 절대주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계획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생명 걸고 도전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는 사람은 바보다. 축복을 다 손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게 해 달라고, 축복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다니엘과 세 친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은 따지면서 믿음은 없다.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목회자의 중심을 가져라.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된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리 욕심내는 순간 망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을 잘할 때 인정받고 빛이 된다.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준비된 디모데에게 새로운 말씀을 준다. 후대들은 1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와 복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오늘 증거 할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

1. 교회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알려 주고 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목사, 전도사, 교계지도자들과 같은 교역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와 같은 중직자들에게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런 시스템들도 필요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각 대상에게 주는 미션을 전달했다.

(1) 먼저 교역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서 감독은 총회장, 노회장같은 분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자리들을 두고 목사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른다. 속이 얼마나 좁은지 자주 빠진다.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 봐도 빠진다. 그래서 감독에게는 한 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족한 게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이지만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그래야 한다. 간혹 청문회를 보면 정말 온갖 것을 다 뒤집어낸다. 우리도 흠과 티가 없어야겠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디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진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마귀도 정죄하지 마라. 내가 빛을 비추고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흑암은 쫓인다. 어둠이 나쁘다고 아무리 말해도 빛이 없으면 어둠은 쫓이지 않는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름을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야 한다.

(2) 다음으로 중직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여기서 정중하다는 말은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 하다는 말이다.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인박’하다는 건 큰 그릇이라는 말이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경은 오직 성령충만을 말하고 있다. 가끔 보면 복음이라고 막 퍼마시는 사람들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중독에 빠져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또 집사님들은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시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중직자들의 기준을 보면 목회자와 비슷하다. 목회자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절대목표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는다고 했다. 왜 여러분이 전도를 잘 못할까?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하시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어디서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한 친구가 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게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확실한 걸 알려줘야 한다. 사람들은 현장을 살릴 힘이 없고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도 없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교회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평생 도전해야 할 복음적인 삶의 기준이다.

2.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먼저 율법주의와 복음적인 삶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교역자들은 복음과 율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잘 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유대교 선생 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걸까? 그렇지 않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게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도둑질을 안 해야, 할례를 받아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다. 율법들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함에 도전하는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악용해서 헐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체질일 안식일교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도 율법주의를 가지고 조직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율법주의와는 다르게 복음적인 삶의 진정한 목표는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남을 돕고 237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다.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해를 주는 사람도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다.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경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소유한 성도로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임하셨으며, 바로 다음에 구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나.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겠나. 사역의 중반기에 기록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후 더 큰 역사와 더 큰 전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치는 후반기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에서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더 겸손해진 것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지금 죄인 중의 괴수 같은 우리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다. 잘난 척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도 하지 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제한적, 선택적 집중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주역이 되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받을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키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중보를 더 잘 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시요 대속자이시고 구원자라는 의미이다.

(4) 또한 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대속의 제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의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바울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지켜야한다고 말한 그걸 조금만 지키면 계속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을 것이다. 경계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 기도를 하겠다.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뜰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 237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교회와 현장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지키는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